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 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진보통합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부, 사회부
  - 제 목 :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집담회 취재 요청
  - 일 시 : 2012년 1월 20일(금)
  - 문 의 :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017-214-3550), hregang@hanmail.net
-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집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모십니다.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발언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해법에 다가서는 접근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집담회는 참석자 전원이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문제, 차별과 폭력 문제, 인권과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오신 단체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담회 기획안]

**“폭력이 부르는 폭력, 차별이 부르는 폭력”**  
**- 학교폭력의 해법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집담회**

■ 때: 1월 25일(수) 오후 2시~5시

■ 곳: 흥사단 강당

■ 공동주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명화·김형태 의원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 구성

: 집담회는 참석자 모두가 심층적인 분석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간략 발제를 요청한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참석자들의 의견과 상호 토론을 통해 퍼즐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 사회 :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1부. [진단] 학교 안 폭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괴물인가? 누가 왜 표적이 되는가? 학교 안 힘의 위계질서와 차별이 낳는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의 악순환을 진단한다.

: 집담회 참가자들의 진단을 들어보면서 ‘학교폭력’(학생간 폭력)에서 ‘폭력 학교’(폭력적 학교구조와 학교문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중요함을 살펴본다.

- 1)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경쟁교육, 폭력적 학교문화 진단  
- 이희진(교사, 대구학생인권연대)
- 2) 폭력학교를 피해 짐을 짊어낸 사람들  
- 문한피(학교폭력 피해 학생)
- 3)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 ‘도가니’와 대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을 중심으로  
- 최석윤(서울장애인부모회)
- 4)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폭력 : 아웃팅과 집단폭행, 자살에 내몰린 청소년 성소수자  
- 호림(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차별사례팀)
- 5) 국제결혼가정, 이주가정 학생에 대한 폭력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6) ‘학교 실적’이 만들어낸 피해자들 : 학교 실적을 위해 죽음의 공장으로 내몰린 현장실습생들(학생 운동선수 인권문제와의 유사성도 포함)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실업위원회)

**2부. [해법 모색을 위한 쟁점토론] ‘폭력의 학교, 죽음의 학교’를 넘어서기 위하여**

: 학교폭력 문제의 해법을 찾는 접근방식의 근본적 관점을 점검하는 쟁점토론을 위주로 집담회를 진행한다.

: 입시경쟁교육의 문제, 폭력적 사회문화가 학교폭력의 밑불이 되고 있음은 전제로 하고, 그 이

상의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

: 사회자가 쟁점별로 먼저 말문을 열어줄 사람을 초대해서 입장을 들어본 다음, 전체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주요 쟁점

1. 학교폭력에 대한 침묵과 방관, 악순환 구조, 어떻게 깬 것인가
2. 가해자 처벌 위주의 해법과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지원 중심의 대책은 어떤 차이를 만드나
3. 학교폭력 해법에서 교사, 학생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무력한가
5. 학교를 넘어선 지원망 확충과 성찰적 사회문화 어떻게 만들까

<각 쟁점별 토론을 열어주실 분들>

- 이영탁(전교조 참교육실)
-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뚝코(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선혜(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김영삼(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
- 이정희(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 유정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